

# 경북식품 해외진출 본격화... 15개국 온·오프 마케팅

**경북도 中 中대 대상 마케팅 지원  
바이코리아에 우수기업 입점  
현지사정 고려 화상 수출상담**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의 농림수산물 수출이 지난 해보다 더 늘어남에 따라 도는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북 우수 농식품의 전세계 수출길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경북도 농림수산물 총수출은 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억9000만 달러보다 11.1% 늘었다.

이 가운데 음료가 5000만 달러(+5.6%), 면류가 2000만 달러(+63.8%), 소스류가 600만 달러(+60.3%)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

계적으로 '집콕 문화'가 확대되면서 간편식 수요가 늘고 가성비와 건강, 재미 등을 내세운 K-식품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세계 식품시장에서 간편식과 건강식품 수요가 늘고 한류열풍에 힘입어 한국산 K-식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경북도가 경북식품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 지원사업은 사인머스켓 등 신선과일, 떡볶이 등 가공식품, 오미자 등 전통음료, 흑마늘진액 등 건강식품, 선식 등 분말식품, 소스류 등 경북도가 자랑하는 우수 농식품을 생산하는 도내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도는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15개국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에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국 대표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시장인 바이코리아(buykorea.org)에 경북식품 우수기업들을 온라인 전시장 형태로 입점시키고, 연말까지 지역당 3~5명의 해외 구매자와 1대1 화상상담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한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바이어 발굴, 통역, 샘플 발송비 등은 경북도가 모두 부담한다.

도는 수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포함해 현지 한국식품 유통판매상과 연계해 오프라인 매장 입점과 판촉전도 함께 추진한다.

현지사정을 고려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 위주로 선별한 후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내기업은 오는 14~25일 경북도나 대구경북 KOTRA지원단 구미분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K-푸드가 코로나19 후 위기가 기회로 됐다. 다양한 수출채널로 경북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추석 맞아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대폭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동시

## 안동시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증액

안동시가 추석을 맞이하여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증액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안동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9월 ~ 10월 두 달간 1인당 당초 월 6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따라서 이번 달에 벌써 60만 원을 구매한 경우 40만 원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 순창군-전북지방우정청, 재해편당 추진

# 호우피해 농가 재기 지원

**재해편당, 소비자가 선구매 방식  
11월 초부터 농작물·가공품 제공**



순창 미나리

전북 순창의 호우피해 농가 한 곳이 '재해편당'으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순창군과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번 호우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미나리, 미나리즙을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재해편당'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인근 지역 21ha가 침수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이번 침수된 지역중 한 곳이 순창에서 최상품의 유기농 미나리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재배면적 6600㎡를 포함한 각종 시설(가공장, 체형장)이 모두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수확 예정인 30여톤의 미나리가 모두 손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재기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절박한 실정이었다.

이에 순창군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전북지방우정청과 '재해편당'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기로 한 것이다.

'재해편당'이란 자연재해 등 피해를 받아 어려워진 농업인 등에 소비자가 선구매를 하고, 농업인은 농작물을 재파종 후 수확시기에 맞춰 농작물,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해편당을 구매 한 소비자는 대상 농업인이 미나리를 파종해 수확 시기인 11월 초부터 구매자에게 미나리, 미나리즙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재해편당금액은 피해농가의 긴급 경영자금으로도 지원한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 부산시, 2030년까지 수소버스 500대 도입

기장군·강서구에 충전소 추가 설치

부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 시내버스 500대를 도입하고 청정해양도시로서 면모를 새롭게 한다.

13일 부산시는 환경부 주관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9월 시내버스 노선에 처음으로 수소전기버스 1대를 투입해 현재 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오는 11월까지 15대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수소전기 시내버스를 1년간 운행한 결과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2022년까지 100대, 2030년에는 시내버스 2511대 중 20%인 500대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 가동 중인 사상구와 강서구 2곳 외에 2022년까지 기장군과 강서구에 2곳을 더 설치할 예정이다. 주



부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 시내버스 500대를 도입한다. 사진은 수소전기 시내버스 충전 장면. /대도여객

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설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수소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소는 신성장 동력이며 친환경 에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에너지 안전성, 경제성 및 친환경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수소 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 경북도, 말산업육성 사업 국비 27억 확보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1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중 학생승마 체험사업등 8개 사업에서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의 서류·현장·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7일 최종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45억원으로 올해 204억원에 비해 29.1%가 감액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북도는 올해 22억보다 21.7%(5억원) 증액된 27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관계자는 시·군 및 사업



구미 실외마장

/경북도

신청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특색과 접목된 관광승마 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식품부의 국비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국비를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 나주시, 나주배 출하준비 '구슬땀'

추석 연휴 출하 물량 1.4만톤 추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명품 나주배 선과작업이 한창이다.

13일 나주시와 나주APC 등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 출하되는 나주배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0%가 줄어든 1만4000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이상 저온현상으로 착과율이 감소한데 이어 여름철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낙과피해가 발생하면서 물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품종인 신고 배의 경우 공관장 경매가격은 15kg상자 특품 기준 5만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新高) 배는 2019년 기준 나주배 전체 과수 면적(1943ha)에서 83.6%



강인구 나주시장(가운데)이 추석 명절 앞두고 배 선과작업현장을 방문 배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1624ha)를 차지하는 대표 품종이다.

타 품종에 비해 과실이 큰 것이 특징이며 부드러운 과육과 풍부한 과즙, 높은 당도로 명절 과일 선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저장성이 좋아 이듬해 설 명절 선물로도 출하된다.

나주배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과일로 인기가 높다. 특히 기관지 건강에 특효다. /전남=강성대 기자

## 부산시 '바른땅 해결사' 제도 운영

부산시는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는 '바른땅 해결사' 제도가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제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에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부산=허의원 기자